제2강(11월 3일)

一. 시작하며: “고전을 통해 현대를 읽는다”
二. ‘정政’과 ‘경經’: 사회에게 묻는다
 1. 소통과 다름의 인정
 2. 함께한다는 것
 3. 바람직한 사회를 바라며
三. ‘생生’과 ‘락樂’: 나에게 묻는다
 1. 어떻게 살 것인가
 2. 산다는 것
四. 마치며: “소통의 이유”

## 一. 시작하며: “고전을 통해 현대를 읽는다”

사물과 시간은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살아온 경험은 현재의 삶과 정체성으로 귀속되거나 잔존한다. 과거의 시간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현재의 존속으로 재확인된다.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을 가능케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전 읽기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도 현재로의 생환生還도 아닌 현대적 관점에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작업이다. 시공을 초월한 인간을 이해하는 갖가지 추형雛形들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글이란 독자의 시각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어느 시대의 누가 읽어도 다층적·다면적으로 읽혀지면서도 동시에 보편적 감동과 지식을 제공해준다. 제2강에서는 한 시대의 작가이자 독자이며 정치가이자 사상가로서 살아간 중국 고대의 문인들. 그들은 당시 사회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말했는가? 현재 우리 일상의 면면들은 고대인들과 어떤 순환적 고리로 연결되어있는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있는 고전을 통해 우리의 현재적 삶과 사회를 돌아본다. 주요 내용은 『논어』, 『맹자』, 『예기』, 『사기』, 『고문관지』, 『설원』, 『세종실록』 및 한국과 중국의 고전시가 등의 작품을 선록選錄하였다.

## 二. ‘정政’과 ‘경經’: 사회에게 묻는다

### 1. 소통과 다름의 인정

--‘화이부동和而不同’: ‘화和’->‘예禮’->‘서恕’

우리는 이익의 추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가져오고 하나의 가치가 유일한 가치로서 다른 가치를 지배하려는 사회에 살고 있다. 혈연·지연·학연 등의 집단적 이기로 가득한 사회에서 차이·타자·다름·이질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는 근거를 ‘화’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이부동’은 ‘조화롭되 뇌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의 출발은 먼저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부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통·공감하려는 노력이다. '화'의 목적은 소통에 있지만 편승이나 동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화'가 자칫 편승으로 이어지면 '당[黨]'을 형성하고 그러면 집단적 이기심을 유발하여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끼리끼리 뇌동하여 소통은커녕 더 큰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 사회와 조직의 리더자에게 더욱 요구되는 개념이다. 업무는 전문가에 맡기면 되지만 도덕성과 융화력이 부족한 리더자는 조직과 사람을 동시에 잃게 된다. 아무리 현대 사회의 기술이 발달되었다 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유가의 시조 공자(孔子, BC 551~BC 479)는 『논어論語·학이學而』편에서 '화'와 '예'의 관계를 말했다.

**유자가 말하기를 "예의 쓰임은 조화를 귀하게 여긴다. 선왕들의 정치는 이것(화)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정책들이 모두 이것(화)으로 말미암으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단지 '화'만을 알고서 '화'를 추구하여 예로써 '화'를 조절하지 않으면 또한 행해지지 않는다."**[1]

'화'의 정신은 사회, 조직 외에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다. 어느 사회와 조직에서든 주장과 견해는 다양하고 엇갈리게 마련이다. 하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다보면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 원칙이 무너지며, 원칙을 잃게 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진다. 이 때문에 '예'로써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화'를 '예'로써 조율해 나갈 때 공동체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와 '화'의 관계는 '공동체'와 '개인'이 공생할 수 있는 상보관계이다.

그러나 화이부동의 실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화'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개념이 바로 '서'이다. '서'는 타자의 입장에 서서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추기급인推己及人]",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하지 말라[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勿施於人]"는 역지사지易地思之로서 '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심리적 전제 요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의 근원적인 씨앗은 바로 '인'이다. 중국 전통 유가사상은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고 도덕적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공자는 도덕적 실현의 핵을 '인'이라고 보았다. 공자가 살던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춘추시대였다. 그는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가치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관건이 된다고 인식하여 '인'을 제시하였다. '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요약하면 바로 '서'라 할 수 있다. 즉 '인'은 타아와 자아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추기급인'을 통해 남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인애로움'을 말한다. 따라서 유가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개념 '인'은 개인의 도덕적 실천[인]과 사회질서 유지[예]에 관건이 되며, 이는 조화로움[화]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대 사회에서 상호 다름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양보와 조율을 통해 공생과 공동의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통의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함께한다는 것

1) 백성과 함께하기: 여민동락與民同樂

---

1) 有子曰: 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小大由之,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 유자왈: 예지용, 화위귀.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 유소불행. 지화이화, 불이예절지, 역불가행야. (『논어·학이學而』).

공자의 유가사상의 도통을 이은 맹자(BC 372~BC 289)는 백성이 군주가 베푸는 '위민'정책의 수혜자이자 정치의 주체임을 '여민'으로 개념화하였다. 맹자의 여민정치에서 모든 정책은 항상 백성을 위한 백성과 함께해야 한다는 민본정치에 입각한 개념이다. 이 때 군주는 국가경영자일 뿐이며, 군주가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자처할 때, 혁명을 통한 새로운 정권의 수립도 가능하다는 역성혁명의 단초를 제시한다.

**맹자가 말하길: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왕은 가벼운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에 들면 제후가 되며, 제후의 마음에 들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면 바꿔야하며, 좋은 제물과 좋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가뭄과 홍수가 계속된다면, 당장 사직을 바꿔야한다."**[2]

천하와 국가는 군주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며, 군주의 지위란 공동체의 관리를 위해 위탁받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맹자의 여민정치는 '인'과 '의'에 입각한 왕도王道정치로서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보는 '민본'사상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뵈었다. 마침 왕이 못가에 서서 큰 기러기와 큰 사슴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현자도 이러한 것을 즐기십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현자인 뒤에야 이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질지 못한 자는 비록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문왕이 백성의 힘을 이용하여 누대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 누대를 영대라 하고, 그 연못을 영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옛 사람들이 백성과 함께 즐겼기 때문에 능히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탕서』에 이르기를 '이 해(태양)가 언제나 없어질고? 내 너와 함께 망하겠노라.'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이 그와 함께 망하고자 한다면 비록 누대, 연못, 조수를 가지고 있은들 어찌 홀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3]

**제나라 선왕이 설궁에서 맹자를 만나자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립니까?"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하길 "예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얻지 못했다고 해서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백성들의 위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지 않은 것 역시 잘못입니다. 군주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백성들 또한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군주가 백성들이 걱**

---

2)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諸侯危社稷, 則變置. 犧牲旣成, 粢盛旣潔, 祭祀以時, 然而旱乾水溢, 則變置社稷." 맹자왈: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시고득호구민이위천자, 득호천자위제후, 득호제후위대부. 제후위사직, 즉변치. 희생기성, 자성기결, 제사이시, 연이한건수일, 즉변치사직." (『맹자·진심盡心 下』).

3) 孟子見梁惠王. 王立於沼上, 顧鴻雁麋鹿, 曰: "賢者亦樂此乎?" 孟子對曰: "賢者而後樂此, 不賢者雖有此, 不樂也.……文王以民力爲臺爲沼, 而民歡樂之, 謂其臺曰'靈臺', 謂其沼曰'靈沼'.……古之人與民偕樂, 故能樂也. 『湯誓』曰: '時日害喪? 予及女偕亡!' 民欲與之偕亡,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 맹자견양혜왕. 왕립어소상, 고홍안미록, 왈: "현자역락차호?" 맹자대왈: "현자이후락차, 불현자수유차, 불락야.……문왕이민력위대위소, 이민환락지, 위기대왈'영대', 위기소왈'영소'.……고지인여민해락, 고능락야. 『탕서』왈: '시일갈상? 여급여해망!' 민욕여지해망, 수유대지조수, 기능독락재?" (『맹자·양혜왕梁惠王 下』).

**정하는 것을 같이 걱정하면 백성들 또한 군주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즐거움을 천하와 더불어 하고 근심을 천하와 더불어 하고서도 왕 노릇하지 못한 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4]**

인군과 백성이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相生·상락相樂의 정치를 강조한 것이다. 비록 고대 군주와 백성의 정치적 관계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지배-복종'관계지만, 정책의 수혜자로서는 상호 쌍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 외에도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신하]는 여민정치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여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재능 있는 현재를 등용해야 한다.

**중궁이 계씨의 읍재가 되어 정치에 대해 물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자들에게 솔선수범하게 하고 작은 허물은 용서해 주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해라." "어떻게 현명한 인재들을 알아보고 등용합니까?" "네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등용해라. [그러면]네가 알지 못하는 [현명한]사람을 남들이 그를 버려두겠느냐?"[5]**

인재 등용은 먼저 구체적인 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업무 과정에서 저지른 '조그만 허물'은 넘어가야한다. 현재를 등용하여 일단 일을 맡기면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뿐, 자질구레한 간섭을 하지 않는 신임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대에서도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해당 '업무'와 분야의 '지식'에만 국한한 인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분야까지도 아우르는 '군자불기君子不器'의 인재상을 표준으로 하였다. 단지 업무능력과 실적만을 올리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덕치와 인재의 소중함을 아는 리더자상을 요구하였다. 지식[군자불기]으로서나 인품과 리더십[화이부동]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맹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賢才의 등용은 반드시 백성들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다음 또 잘 살핀 후에 신중하게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보고 말하기를 "이른바 고국이라고 일컫는 것은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대대로 오래 된 세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는 측근의 신하가 없고, 옛날에 등용했던 사람도 현재 어디로 사라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맹자가 답하기를 "좌우 신하들이 모두 현자라고 말해도 아직 안 되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현자라고 말해고 아직 안 되며, 백성들이 모두 현자라고 말하면 그 후에 가서 정말 현자인지를 잘 살핀 후에 등용해야 합니다. 좌우 신하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해도 듣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해도 듣지 말며, 백성들이 모두**

---

4) 齊宣王見孟子於雪宮. 王曰: "賢者亦有此樂乎?" 孟子對曰: "有. 人不得, 則非其上矣. 不得而非其上者, 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 亦非也.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제선왕견맹자어설궁. 왕왈: "현자역유차락호?" 맹자대왈: "유. 인부득, 즉비기상의. 부득이비기상자, 비야; 위민상이불여민동락자, 역비야. 락민지낙자, 민역락기락; 우민지우자, 민역우기우. 낙이천하, 우이천하, 연이불왕자, 미지유야."(『맹자·양혜왕 하』).

5) 仲弓爲季氏宰, 問政. 子曰: "先有司, 赦小過, 擧賢才." 曰: "焉知賢才而擧之?" 曰: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중궁위계씨재, 문정. 자왈: "선유사, 사소과, 거현재." 왈: "언지현재이거지?" 왈: "거이소지, 이소부지, 인기사저?" (『논어·자로子路』).

**안 된다고 말하면 그 후에 잘 살핀 후 정말 안 되는 지를 본 후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6]

인재를 등용하고 파면할 때에는 인척이나 측근의 추천과 평가보다 항상 백성들의 의견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 민생 챙기기: '항산恒産'->'항심恒心'

전통 유학에서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이익추구를 사리사욕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익은 군자들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도덕적 금기였다. 유가에서는 '의義'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利'를 내세웠다. '의'가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도덕적 길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사욕, 물질적 이익을 좇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송나라 때 이학가들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앤다[존천리存天理, 멸인욕滅人慾]"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이처럼 유가는 "의를 중시하고 이익을 가벼이 여긴다[중의경리重義輕利]"는 태도를 군자의 도덕적 표준으로 삼았고, '이'를 버리고 '의'를 취하는 태도에 따라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였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군자유어의君子喩於義, 소인유어리小人喩於利]"라고 하였고, 순자(荀子, BC 298~BC 238)는 "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뒤로하면 영화롭고, 이익을 먼저하고 의를 뒤로하면 치욕을 당한다[선의이후리자영先義而後利者榮, 선리이후의자욕先利而後義者辱]"라고 말했듯이, '의'와 '이'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가치 표준이 되었다. 결국, 유가의 가치관은 '의'를 중시하고 '이'를 가벼이 하는 군자의 인격을 바탕으로 덕치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려하였다. 따라서 군자는 개인적인 사욕, 물질적 이익을 버리고 도덕적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감화를 줄 수 있는 덕치사회를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다르다. 맹자는 정치란 무엇보다 백성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에 덕치의 근본인 인의예지와 같은 항상심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항산(恒産: 일정한 생업)이 없더라도 항심(恒心: 일정불변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으며,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정된 생업이 없어도 항상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합니다. 일반 백성은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 항상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항상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사특하고 지나친 일을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법을 적용시켜 처벌한다면 그것은 백성을 그물질(기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하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잘 기를 수 있게 해야 하며,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고 흉년에는 사망에서 면하게 해야 합니다.**

---

6)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王無親臣矣,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孟子)曰: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 然後用之. 左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 見不可焉, 然後去之." 맹자견제선왕왈: "소위고국자, 비위유교목지위야오, 유세신지위야. 왕무친신의, 석자소진, 금일불지기망야." ……(맹자)왈: "좌우개왈현, 미가야; 제대부개왈현, 미가야; 국인개왈현, 연후찰지, 견현언, 연후용지. 좌우개왈불가, 물청; 제대부개왈불가, 물청; 국인개왈불가, 연후찰지, 견불가언, 연후거지" (『맹자·양혜왕 하』).

**그런 후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선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쉽게 따르게 됩니다.**[7]

이러한 사상은 우리나라 영조英祖 17년 1월 6일(임신)의 기록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는 기강이 없고, 조정에는 당습[파당派黨을 만들어 다른 패를 배척하는 습속]이 많아 민생은 서로 잊어버리는 지경에 버려두고 있으니, 백성이 어떻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양역청은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다. 진실로 항산과 항심이 있으면 비록 상을 준다하더라도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다."**[8]

진정한 인군의 길이란 무엇인가? 바로 백성을 편안히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맹자는 백성들의 생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묘의 땅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다. 닭이나 돼지 등이 새끼 낳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된 노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또 백 묘의 밭에서 농사짓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농번기에 부역을 피함] 여러 식구가 되는 집안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후에 학교를 세워 효제의 뜻을 펼쳐나가면 반백의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이고 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70세 된 노인들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백성들이 추위와 굶주림이 없게 된 후에 왕 노릇하지 못 한자는 아직 없었다.**[9]

맹자는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민론富民論을 제시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군주는 가벼운'[민위중民爲重, 군위경君爲輕] 민본주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먼저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는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런 후 교육을 하면 인의도덕의 항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三. 바람직한 사회를 바라며

1) 정치득실의 기준: 음악

---

7) 孟子曰: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乃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맹자왈: "무항산이유항심자, 유사위능. 약민즉무항산, 인무항심. 약무항심, 방벽사치, 무불위이. 내함어죄, 연후종이형지, 시망민야. 언유인재위, 망민이가위야? 시고명군제민지산, 필사앙족이사부모, 부족이육처자, 낙세종신포, 흉년면어사망, 연후구이지선, 고민지종지야경." (『맹자·등문공滕文公 上』).

8) 上曰: "國無紀綱, 朝多黨習. 置民生於相忘之域. 民安得依恃? 良役廳有名無實, 苟有恒産恒心, 則雖賞之不竊." 상왈: "국무기강, 조무당습. 치민생어상망지역. 민안득의시? 양무청유명무실, 구유항산항심, 즉수상지부절." (『영조실록英祖實錄』 제53권). 양역은 조선 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公役이다. 노역에 종사하는 요역徭役과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軍役이 있었다. 양역청은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9) 五亩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亩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教,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오묘지택, 수지이상, 오심자가이의백의. 계돈구체지휵, 무실기시, 칠십자가이식육의; 백묘지전, 물탈기시, 수구지가가이무기의; 근상서지교, 신지이효제지의, 반백자불부대어도로의. 칠십자의백식육, 여민불기불한, 연이불왕자, 미지유야. (『맹자·양혜왕 상』).

고대에서는 정치의 득실이 인간의 정서와 음악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음악은 당시 정치득실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시경』, 『예기』 등에는 정치와 음악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있다.

**무릇 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소리로 나타나며, 소리가 무늬를 이루니 이것을 음이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잘 다스려진 시대의 음은 편안하고도 즐거우니, 그 정치가 화평하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시대의 음은 원망과 분노에 차있으니, 그 정치가 도리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망국의 음은 슬프고 애달프니, 그 백성이 곤궁하기 때문이다. 성음聲音의 도는 정치와 통하는 것이다. ……정 나라와 위나라의 음은 난세의 음이니 게으름에 가깝다. 상간복상의 음은 망국의 음이다. 그 정치가 흩어지고 그 백성이 유리하며, 윗사람을 속이고 사악을 행하여도 제지할 수가 없다.**[10]

한 시대의 정치, 사회 변화는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하에 치세의 음악·난세의 음악·망국의 음악으로 나누어 정치의 득실과 민심을 파악하였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리듬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슬픔 리듬[가사]의 음악은 망국의 음악으로 보았고, 원망과 분노의 리듬[가사]은 난세의 음악이며, 편안하고 잔잔한 리듬[가사]은 치세의 음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음악은 그대로 백성들의 정서와 지역의 풍습에서 드러난다는 인식하에, 특히 『시경』 15개 국풍國風 가운데 정鄭나라 음악과 위衛나라 음악을 난세의 음이라고 간주했다.

2) 일그러진 사회

고대 시인들은 특히 이러한 잘못된 정치와 사회로 인한 고통을 시로 많이 표현하였다.

--가슴에 묻은 자식1

「월야억아月夜憶兒--떠나보낸 자식을 그리워하며」

| | |
|---|---|
| **밝은 달 같은 너의 얼굴** | 月華如汝面 **월화여여면** |
| **밤마다 동쪽 정원에 떠오른다** | 夜夜上東園 **야야상동원** |
| **지난 일들 모두가 한스럽기만 하니** | 萬事皆成恨 **만사개성한** |
| **저 하늘에 원통함을 하소연이라도 해볼까** | 九天欲訴冤 **구천욕소원** |
| **머리맡에 눈물은 날로 더해가고** | 新添枕邊淚 **신첨침변루** |
| **꿈속에 떠도는 넋 오늘도 마주 한다** | 時接夢中魂 **시접몽중혼** |
| **아직도 남은 꽃향기가 맴돌며** | 猶有殘花馥 **유유잔화복** |
| **처연히 술잔 속을 채운다** | 凄然入酒罇 **처연입주준** |

10) 凡音者生人心者也, 情動於中, 故形於聲, 聲成文謂之音. 是故治世之音安以樂, 其正和; 亂世之音怨以怒, 其正乖; 亡國之音哀以思, 其民困. 聲音之道, 與政通矣.……鄭衛之音, 亂世之音也, 比於慢矣. 桑閒濮上之音, 亡國之音也, 其政散, 其民流, 誣上行私而不可止. 범음자생인심자야, 정동어중, 고형어성, 성성문위지음. 시고치세지음안이락, 기정화; 난세지음원이노, 기정괴; 망국지음애이사, 기민곤. 성음지도, 여정통의. ……정위지음, 난세지음야, 비어만의. 상간복상지음, 망국지음야, 기정산, 기민류, 무상행사이불가지. (『예기禮記·악기樂記』).

이 시는 자식을 잃은 아비의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홍경모(洪敬謨, 1774~1851)는 4남 5녀를 두었는데 마마로 3남 3녀를 잃었다. 1800년 늦봄, 마마가 돌아 첫째 6살 경증慶曾과 돌도 안 된 셋째 복증福曾이 앓다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우이동牛耳洞에서 장사를 마친 후 산 속에 아이들을 두고 오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픔을 견디지 못해 멍하니 정원에 앉아 오르는 달을 바라보니 아이들 얼굴이 어슴푸레 떠오른다. 잘 해주지 못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고 일찍 데려간 하늘을 보며 원망도 해본다. 어느 날엔 꿈속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기도 했지만 깨어서는 처연하게 술잔만을 기울일 뿐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내일은 없다. 우리 사회도 많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11)]
(보충: 왕도의 길->흉년으로 죽인 것과 정치로 죽인 것의 차이점--『맹자』)

--가슴에 묻은 자식2

두보는 고난의 시인이다. 개인·국가·시대의 고난과 아픔을 담은 작품이 많다. 그 가운데 「자경부봉선현영회오백자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에서는 두보가 굶어 죽은 어린 자식을 묻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인다. 벼슬자리도 못하고 떠돌던 어느 해 늦가을, 두보는 봉선으로 가족을 만나러 돌아온다. 바람은 몹시 차가웠지만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현실보다 잔혹한 꿈은 없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립문을 열자 그를 반기는 건 아내의 울음소리였다. 어린 아들이 굶어 죽었다. 주름 패인 두보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사에서 봉선현으로 오면서 읊은 오백 자」

| | |
|---|---|
| **문 열자 들려오는 통곡소리** | 入門聞號咷 **입문문호도** |
| **어린 아들이 굶어죽고 말았구나** | 幼子餓已卒 **유자아이졸** |
| **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 吾寧捨一哀 **오녕사일애** |
| **마을 사람들도 흐느껴 우는구나** | 里巷亦嗚咽 **리항역오열** |
| **부끄럽다! 사람의 아비가 되어서** | 所愧爲人父 **소괴위인부** |
| **먹을 것 없어 굶어죽게 만들다니** | 無食致夭折 **무식치요절** |
| **가을 곡식 다 익었건만, 어찌 알았겠는가** | 豈知秋禾登 **기지추화등** |
| **가난한 집에 이런 변고가 생길 줄을** | 貧窶有倉卒 **빈구유창졸** |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굶겨죽었건만 황실과 관료의 집엔 먹을 것이 썩어 돌았다. 두보의 눈은 잦은 전란과 흉년으로 가혹한 세월을 견뎌가는 민중의 질고로 향했다.

| | |
|---|---|
| **붉은 문 안에서는 술과 고기 썩어나고** | 朱門酒肉臭 **주문주육취** |
| **길에는 얼어 죽은 이들의 해골이 뒹군다** | 路有凍死骨 **노사동사골** |
| **영화로움과 궁핍함이 지척 사이로 다르니** | 榮枯咫尺異 **영고지척이** |
| **슬픈 마음에 말을 잊는다** | 惆悵難再述 **추창난재술** |

11)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한시감상, 변구일(2014년 6월 12일) 참조.

관료의 대문 안에서는 술과 고기가 남아도는데 대문 밖은 얼어 죽은 해골들이 뒹구는 현실이다. 부패한 당대의 현실과 참혹한 백성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3) 리더자에게 바란다

--내 탓이로소이다: 죄기교서罪己敎書

**왕은 말한다. 듣건대, 사람이 아래에서 감동시키면 하늘은 위에서 응한다고 한다. 하늘과 사람의 사이에 감응하는 것이 이같이 빠른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늘이 돌보아 도와주는 두터운 정성을 입고, 조종祖宗이 쌓은 깊은 공적을 계승하여, 억조 만민 위에 서서 임금이 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동안에 하늘이 견책하면서 경고를 보인 것이 없는 해가 없었으므로, 나는 진실로 두려운 마음에 편안히 지내지 못하였다. 지난해부터 여름에는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았으며, 겨울에도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았다.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는 재변災變이 거듭되어, 사람은 잿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곡식은 말라 죽었다. 하늘의 견책이 이토록 극도에 다다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감히 한가롭게 지내지 못하였다. 이에 대소 신료들의 충고와 직언에 힘입어, 나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메우려 한다. 만약 의심을 품고 간사한 마음을 가져서 도리어 말을 하면 원망을 받게 되고, 글을 올리면 화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말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내가 바라는 바이겠는가. 많은 신하들의 사특함과 정직함을 여기에서 알게 될 것이다. 무릇 과인의 잘못과 실정, 여러 신하의 충성과 아첨, 시정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법도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각자 비밀 상소를 올려 숨김이 없이 다 진언하라. 내가 모두 친히 볼 것이요 담당관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 혹 맞지 않더라도 죄 주지 않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현직에 있는 신하들 및 물러나 있는 신하들은 모두 나의 지극한 뜻을 잘 인식하고서 상소를 올리라.**[12]

이 기록은 세종 8년(1426) 5월 6일 세종이 가뭄이 든 것을 안타까워하며 내린 교서敎書이다.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의 교서를 죄기교서罪己敎書라고 한다. 자신의 죄를 자책하면서 내리는 교서라는 뜻이다. 죄기교서를 내리면 신하들은 그에 대한 시정책是正策을 제시하였고,

12) 王若曰, 蓋聞, 人感於下, 天應於上, 天人之間, 感應斯速, 不可誣也. 予以否德, 荷上天眷佑之篤, 承祖宗積累之深, 君臨億兆之上, 蓋有年矣. 天之視譴, 無歲無之, 予固惕然不寧. 曰自往歲, 夏旱不雨, 冬燠無氷, 自春迄今, 變咎荐臻, 人居煨燼, 禾穀枯槁. 天之譴告, 一至此極, 夙夜祗懼, 罔敢或遑. 庶賴大小臣僚忠言讜論, 補予不逮. 若乃懷貳挾詐, 反謂言爲怨府·翰爲禍胎, 不肯盡言, 豈所望哉? 群臣邪正, 此亦可見. 凡於寡人之闕遺·群臣之忠佞·時政之得失·法度之臧否·生民之休戚, 其各密疏以言, 悉陳無隱. 予皆親覽, 不付有司, 言或不中, 亦不加罪. 咨爾中外時散大小臣僚! 體予至意. 왕약왈, 개문, 인감어하, 청응어상, 천인지간, 감응사속, 불가무야. 여이부청, 하상천권우지독, 승조종적루지심, 군림억조지상, 개유년의. 천지시견, 무세무지, 여고척연불녕. 왈자왕세, 하한불우, 동오무빙, 자춘글금, 변구천진, 인거외신, 화곡고고. 천지견고, 일지차극, 숙야지구, 망감혹황. 서뢰대소신료충언당론, 보여불체. 약내회이협사, 반위언위원부·한위화태, 불긍진언, 기소망재? 군신사정, 차역가견. 범어과인지궐유·군신지충녕·시정지득실·법도지장부·생민지휴척, 기각밀소이언, 실진무은. 여개친청, 불부유사, 언혹불중, 역불가죄. 자이중외시산대소신료! 체여지의.『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 8년(1426) 5월 6일).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고전산문, 정선용(2014년 6월 12일)의 글을 옮김.

임금은 이를 여러 대신과 논의하여 국정에 반영하였다. “저 하늘은 아득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백성의 눈을 통하여 보고 백성들의 귀를 통하여 듣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천명天命을 내려주기도 하고 천명을 거두기도 한다고 한다.”(『서경書經』) “하늘에게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으며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 “복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듯이” ‘하늘’을 경외하듯 ‘백성’을 중히 여기는 우리 시대의 리더자상을 바래본다. 실정失政을 인정하고 잘못을 적시하면서 ‘죄기교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리더자...

## 三. ‘생生’과 ‘락樂’: 나에게 묻는다

### 1. 어떻게 살 것인가?

1) 부에 대한 관념

부귀는 누구나 좋아하는 바이다. 고대의 부귀를 대하는 태도와 관념은 어떠했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부와 귀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처하지 말라. 빈천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닐지라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13]

부귀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빈천은 다들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벗어나지는 않는다[예:안연顔淵-안빈낙도-단표누항簞瓢陋巷-자족]. 정도가 아닌 편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지 말며 가난하다고 비굴하거나 편법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자가 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자는 부가 구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하겠지만, 부귀가 억지로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종오소호從吾所好]고 하였다. “의롭지 못한 부와 귀는 내게 있어 뜬 구름과 같다[불의이부차귀不義而富且貴, 어아여부운於我如浮雲]”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귀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부귀를 구하기 위해 헛된 시간과 노력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보람찬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한다.

2) 처세의 유형

--억울함과 분노 앞에서: 사마천과 굴원

2000년 전, 중국에 ‘굳세고 의연한’ 사람이 있었다. 태사공太史公이다. 그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매국노’로 모함을 당한 이릉李陵 장군의 부당함을 변호하다가 결국 한나라 무제에게 궁형宮刑을 당했다[궁형은 ‘오형五刑’ 중의 하나이다. 오형은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묵墨

13)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자왈: “부여귀, 시인지소욕야, 불이기도득지, 불처야; 빈여천, 시인지소오야, 불이기도득지, 불거야” (『논어·이인里仁』).

형, 코를 베어내는 의劓형, 거세를 하는 궁宮형, 발뒤꿈치를 베어내는 비腓형, 참수형 대벽大辟이다]. 사마천은 치욕스런 궁형을 받고 다시 태사령이 되어 『사기』를 완성할 무렵, 옛 친구 임안이 황제와 태자간의 난에 연루되어 사형을 받게 되자, 그에게 편지를 보낸다(「보임안서報任安書」)이다. 사마천은 이 편지에서 뼈아픈 심정과 치욕 속에서도 왜 살아야했는지에 대해 토로하면서 이러한 명구를 남긴다. "사람은 본디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인고유일사人固有一死, 혹중어태산或重於泰山, 혹경어홍모或輕於鴻毛]" 사마천은 거세를 당한 후 극도의 슬픔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나 집에 있을 때는 망연자실하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했소. 매번 이런 치욕감이 일 때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 옷을 흠뻑 적셨다네."[14]라고 말했듯이, 그 모멸감이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사마천은 그것을 견디고 『사기史記』를 완성하였다. 사마천은 그래서 자신의 심정과 유사한 경험을 한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이소離騷」라는 작품에서 그의 인품을 높이 칭송하였다.

**굴원은 왕이 한쪽 말만 듣고 총기가 흐려지고 아첨으로 인해 밝음이 막히고, 사악하고 비뚤어진 무리가 공명정대함을 해치고 정직한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여, 우수와 근심으로 인하여 「이소」를 지었다. '이소'는 근심을 만났음을 의미한다. ……굴원은 올바른 도리를 곧게 실천하여 충성을 바치고 지혜를 다하여 임금을 섬기었는데, 아첨하는 자들이 그 사이를 이간질하여 궁지에 처했던 것이다. 신의를 지켰으나 의심을 받았고, 충성을 바쳤으나 비방을 당했으니, 어찌 원망스럽지 않겠는가? 굴원이 지은 「이소」는 본디 이런 원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진흙구덩이에 빠져 더럽혀질지라도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세속의 외부로 헤쳐 나와 세속의 쌓인 때를 덮어쓰지 않았고, 결백하게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았다.**[15]

억울함 앞에서 굴원과 사마천의 모멸과 분노는 유사했다. 그리고 이 둘은 창작으로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나갔다. 물론 종국에 가서 굴원은 자살로 생을 맺는 점이 사마천과 다르다. 현대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과연 어떻게 분출하고, 어떠한 삶의 전환으로 옮겨가는가.

--깨끗하게 살기: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중국 고대 상商나라 때 북방에 고죽국孤竹國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고죽군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백이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는 숙제이다. 고죽군이 죽은 후 큰 아들과 셋째 아들이 서로 군주 자리를 양보하며 오르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결국 둘째에게 양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둘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노인을 잘 대우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지금의 산시陝西 경내에 이르렀을 때 문왕이 세상을 떠나

14) 是以腸一日而九迴, 居則忽忽若有所亡, 出則不知所往. 每念斯恥, 汗未嘗不發背霑衣也. 시이장일일이구회, 거즉홀홀약유소망, 출즉부지소왕. 매념사치, 한미상불발배점의야 「임안에게 보내는 편지報任安書」.

15) 屈平疾王聽之不聰也, 讒諂之蔽明也, 邪曲之害公也, 方正之不容也, 故憂愁幽思而作「離騷」. 「離騷」者, 猶離憂也.……屈平正道直行, 竭忠盡智以事其君, 讒人間之, 可謂窮矣.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屈平之作<離騷>, 蓋自怨生也.……濯淖汚泥之中, 蟬蛻於濁穢, 以浮游塵埃之外, 不獲世之滋垢, 皭然泥而不滓者也. 굴평질왕청지불총야, 참첨지폐명야, 사곡지해공야, 방정지불용야, 고우수유사이작「이소」. 「이소」자, 유이우야.……굴평정도직행, 갈충진지이사기군, 참인간지, 가위궁의. 신이견의, 충이피방, 능무원호? 굴평지작「이소」, 개자원생야.……탁작오니지중, 선예어탁예, 이부유진애지외, 불획세지자구, 작연니이불재자야. (『사기·굴원열전史記·屈原列傳』).

고 말았다. 이 무렵 문왕의 아들 무왕武王은 혁명을 일으켜 문왕의 사망을 비밀로 하고 장례를 치루지 않았다. 무왕은 문왕의 패위를 가지고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공격했다. 백이와 숙제는 이 사실을 알고 옳지 않은 일이라며 무왕의 말고삐를 잡으면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루지 않는 것은 불효이며,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불인한 것'이라고 간언을 올렸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수양산首陽山으로 도망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살다가, 그것마저도 주나라 것이라고 여겨 끝내 굶어죽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노래를 읊었다.

「채미가采薇歌--고사리를 캐며」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자.**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것이 나쁜 것을 모르도다.**
**신농씨와 요순시대는 이미 다 가버렸으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귀의할고!**
**오호라, 떠나자! 쇠한 운명이여.**16)

사마천은 이러한 굴원과 백이·숙제의 억울하고 고결한 행동을 통해 과연 천명天命은 존재하며 공평한 것인가? 착한 사람은 고생을 하고 악한 사람은 제 수명을 다 누리는 것을 보고 하늘은 과연 선한 이의 편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천도天道는 공평무사해서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라 했다. 백이, 숙제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처럼 인덕仁德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했음에도 그들은 굶어서 죽었다. 어디 그뿐이랴! 70제자 중에서 공자는 오직 안연顔淵 하나만을 학문을 좋아하는 제자로 천거했다. 그러나 안연도 항상 가난해서 조강糟糠 같은 거친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요절하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상해준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는가?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살을 회쳐서 먹으며 포악무도한 짓을 함부로 하며 수천 명의 도당을 모아 천하를 횡행했지만 끝내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이것은 그의 어떠한 덕행에 의한 것이란 말인가?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의혹스러움을 느낀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이른바 천도라고 한다면 그 천도는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17)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현대 인간의 처세를 한번쯤 생각게 한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자신의 청렴결백함을 지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보여준다. 개개인의 정신이 깨끗하고 청렴한 도덕성을 가질 때 올바른 정의의 사회가 도래한다. 그러기 위해선 나

16) 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神农·虞·夏忽焉兮, 我安適歸矣? 於嗟徂兮, 命之衰兮. 등피서산혜, 채기미의. 이폭역폭혜, 부지기비의. 신농·우·하홀언혜, 아안적귀의? 오차조혜, 명지쇠혜. (『사기·백이열전』).

17) 或曰："天道無親, 常與善人" 若伯夷·叔齊, 可謂善人者非邪？ 積仁絜行如此而餓死! 且七十子之徒, 仲尼獨薦顔淵爲好學. 然回也屢空, 糟糠不厭, 而卒蚤夭. 天之報施善人, 其何如哉？ 盜蹠日殺不辜, 肝人之肉, 暴戾恣睢, 聚黨數千人橫行天下, 竟以壽終. 是遵何德哉？ ……余甚惑焉, 儻所謂天道, 是邪非邪？혹왈: "천도무친, 상여선인." 약백이숙제, 가위선인자비야? 적인결행여차이아사! 차칠십자지도, 중니독천안연위호학, 연회야루공, 조강불염, 이졸조요. 천지보시선인, 기하여재? 도척일살불고, 간인지육, 폭려자휴, 취당수천인횡행천하, 경이수종, 시준하적재? ……여심혹언, 당소위천도, 시사비야? (『사기·백이열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자문해 보자.

## 2. 산다는 것

### 1) 내려놓기: 자연 속에서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자字는 연명 또는 원량元亮. 이름은 잠潛이다. 오류五柳선생으로도 불린다. 동진東晋말의 대표적인 중국의 전원시인이다. 29살에 벼슬길에 올랐으나 관직에 염증을 느껴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41세 되던 해 누이의 죽음을 핑계로 마지막 벼슬 펑쩌현彭澤縣의 현령縣令을 사직하고 전원으로 돌아와 그 이듬해 42세에 지은 작품이다. 모두 5수이며 그 중 제 일수이다.

「귀원전거歸園田居(一)--전원으로 돌아가(일)」

| | | |
|---|---|---|
| **젊어서부터 세속의 소리 맞지 않았고** | 少無適俗韻 | **소무적속운** |
| **성품은 본디 산림을 좋아했지만** | 性本愛丘山 | **성본애구산** |
| **어쩌다 세속의 그물에 잘못 떨어져** | 誤落塵網中 | **오락진망중** |
| **삼십 년 세월 훌쩍 보냈네** | 一去三十年 | **일거삼십년** |
| **새장에 갇힌 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 | 羈鳥戀舊林 | **기조연구림** |
| **못에 사는 물고기는 떠나온 연못을 그리워하듯** | 池魚思故淵 | **지어사고연** |
| **남쪽 들 끝 황무지를 일구며** | 開荒南野際 | **개황남야제** |
| **담박하게 살아보고자 전원으로 돌아왔네** | 守拙歸園田 | **수졸귀원전** |
| **네모난 텃밭 십여 이랑** | 方宅十餘畝 | **방택십여무** |
| **초가집 여덟아홉 칸** | 草屋八九間 | **초옥팔구간** |
| **느릅나무 버드나무 뒤 처마에 그늘을 드리우고** | 榆柳陰後檐 | **유류음후첨** |
|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대청 앞에 늘어섰네** | 桃李羅堂前 | **도리나당전** |
| **먼 곳 마을 어렴풋이 보이고** | 曖曖遠人村 | **애애원인촌** |
| **인가에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네** | 依依墟里煙 | **의의허리연** |
| **깊은 골목에선 개 짖는 소리** | 狗吠深巷中 | **구폐심항중** |
| **뽕나무 끝에선 닭 우는 소리 들려오네** | 鷄鳴桑樹顚 | **계명상수전** |
| **뜰에는 잡된 것 없고** | 戶庭無塵雜 | **호정무진잡** |
| **빈 방엔 한가로움이 감도네** | 虛室有餘閒 | **허실무여한** |
| **오랫동안 새장 속에서 지내다가** | 久在樊籠裏 | **구재번농리** |
| **이제야 자연의 품으로 돌아왔네** | 復得返自然 | **부득반자연** |

시인의 시선을 따라 감정의 추이를 쫓아가다보면, 전원의 삶을 질박하며 평이한 언어로 담고 있음을 알게 되며, 자연 순응을 지향하는 시인의 평담한 삶의 태도가 느껴진다.

현대인은 시간에 쫓기어 산다. 그리고 인간은 마치 일하는 동물처럼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물리적 시간은 한정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생각에 따라 우리는 시간을 조작해낼 수 있다. 우리의 시간이 휘발되지 않게 그것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나의 시간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아야 자신이 보이고 삶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으며 나만의 시간이 재창조될 수 있다. 그리고 정관靜觀하는 삶, 사색하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보자. 귀농을 해야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SNS를 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잠시나마 도시의 은자[시은市隱]들이 되어 나를 관조하는 시간도 가져보자.

2) 황혼의 생명

「입춘立春--'저무는 봄'」[18)]

| | |
|---|---|
| **눈바람으로 스산한 밤 무척 길기도 한데** | 風雪蕭蕭夜苦長 **풍설소소야고장** |
| **잠 깨인 찬 창가에 새벽빛이 흔들린다** | 寒窓睡罷動晨光 **한창수파동신광** |
| **매화향기 새어들어 봄소식 전해오니** | 梅香漏洩春消息 **매향류설춘소식** |
| **한기 가득한 대지위로 한줄기 따스한 빛이어라** | 大地窮陰一線陽 **대지궁음일선양** |
| **누런 닭 울어 새 하늘을 알려오니** | 黃雞喔喔報新天 **황계악악보신천** |
| **유수 같은 세월 속에 어언 칠십이라** | 流水光陰七十年 **유수광음칠십년** |
| **세상만사 유유하게 모두 아랑곳 않고** | 萬事悠悠渾不管 **만사유유혼불관** |
| **조심스러운 일념 속에 온전히 돌아가리라** | 淵冰一念且歸全 **연빙일념차귀전** |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평생을 주로 학문에 전념하면서 많은 학자들을 길러내었다. 이 시는 그가 71세의 나이로 생을 마친 1781년 입춘을 맞이하며 지은 시이다. 입춘은 봄의 시작이지만 겨울의 끝자락이기도 하다. 시인은 새벽녘에 찾아든 매화 향기와 한줄기 볕으로 새봄을 느낀다. 시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편안한 봄날을 맞이하듯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간다.

## 四. 마치며: "소통의 이유"

--현대 사회는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기구와 기술이 날로 발달되어가고 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유형도 많고 정보와 지식도 범람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상대적으로 소통의 부재를 외친다. 과연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부재'일까? 소통은 기술의 도구를 빌리거나 직접적인 대화 방식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시대를 소급하여 고전에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我思古人아사고인, 實獲我心실획아심

"내가 옛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실로 나의 마음으로 얻기 위함이다"

**참고서목**: 『논어』, 『맹자』, 『사기열전』, 『유학, 시대와 통하다』, 『시간의 향기』,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18)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한시감상, 이정원(2014년 1월 9일)의 글 참조.